



2026학년도 제1회 강원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2026. 4.

강원대학교 재정위원회

2026학년도 제1회 강원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개 회	2026. 4. 30.(목) 16:00	산 회	2026. 4. 30.(목) 17:00
장 소	춘천캠퍼스 대학본부 교무회의실 / 삼척캠퍼스 대학본관 3층 회의실 / 강릉캠퍼스 대학본부 2층 220호 / 원주캠퍼스 원주대학본부 203호			
출 석	위 원	◦ 위원장(김병희) ◦ 당연직 위원(4명): 장철성, 유춘동, 신미경, 함석동 ◦ 일반직 위원(7명): 김병희, 하석진, 박훈, 박경옥, 권기욱, 김동현, 정의봉 ※ 불참(4명): 일반직 위원(박병선, 여인만, 이경아, 이성민)		
	교직원	재무과장(김영관), 예산팀장(김서희), 재무팀장(최승순), 재무팀장(엄재수), 운영지원팀장(탁희석), 담당자(김예현)		
안 건	○ (안건 1) 2026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운영 계획(안) ○ (안건 2) 대학회계직원 총 정원 운용 계획(안)			
심의결과	○ 원안의결			

위 원 장철성	장철성
위 원 유춘동	유춘동
위 원 김동현	김동현

1. M. M. 1
公使署 1
155

[성원보고]

○ 재무과장

- 재정위원회 위원 15명 중 11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2026학년도 제1회 재정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위원구성]

○ 재무과장

-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당연직은 5명, 일반직 10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함. 당연직은 기획혁신처장과 사무국장, 캠퍼스의 보직자들로 구성했고, 일반직은 교원, 직원, 학생, 동창회 추천을 받았음. 다만 위원 수 제한 때문에 직원이나 학생 위원은 부득이하게 캠퍼스별로 순서를 정해 추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음.

[위원장 선출]

○ 재무과장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 위원 중 선출해야 함을 안내함.

- 위원들의 추천으로 김병희 위원(기계융합공학부 교수)이 단독 후보로 올랐으며, 일반직 위원 전원 동의로 위원장에 선출됨.

○ 위원장

- 통합 대학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재정위원회의 구성이 변화된 만큼, 4개 캠퍼스 위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통합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힘.

[안건1] 대학회계 직원 총 정원 운영 계획(안) : 원안 의결

○ 위원장

- 안건 심의를 시작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진행함. 제2호 안건인 ‘대학회계 직원 총 정원 운영 계획(안)’을 먼저 상정함.

(안건 설명: 총무과장)

한글

한글

○ 총무과장

- 2026년 상반기 비공무원 정원 조정 의결 사항을 보고함. 무기계약직은 동결 원칙이나, 삼척캠퍼스의 입학사정관 인력이 타 캠퍼스 대비 현저히 부족하여(춘천 9명, 강릉·원주 8명 대비 삼척 2명) 예외적으로 2명 증원을 상정함. 기간제 계약직은 국책 사업 수행 등 한시적 인력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21명을 증원하고자 함.

○ 위원장

- 부서별 인력 신청 시 가이드라인이 명확한지 질의함. 신청은 많으나 불승인 건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기준의 투명성을 강조함.

○ 총무과장

- 공문 시행 시 운영 원칙을 사전 안내하고 있으나 부서별 수요가 높음. 정보화본부 증원 요청의 경우, 2028년 인력 재배치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무기직 증원은 어렵다고 판단함.

○ 하석진 위원

- 삼척 입학본부만 승인된 구체적 사유와 다른 8개 불승인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 총무과장

- 입학 업무는 캠퍼스별 독립 운영 체계이므로 필수 인력 확보가 시급함. 또한 이번 증원은 춘천 대학회계 재원이 아닌 해당 캠퍼스 재원 부담임을 고려함.

○ 박훈 위원

- 삼척 캠퍼스 입시 업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독립 운영되는 만큼, 대학의 시작점인 입학 업무 안착을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함.

○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학회계 직원 총 정원 운영 계획(안)」의 무기계약직 2명 및 기간제 계약직 21명 증원 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전원: 이의 없음)

地号

4/5 1/2 11/0 W. V. 1

○ 위원장

-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함.

(의사봉 3회 타봉)

[안건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계획(안) : 원안 의결

○ 위원장

- 다음 안건인 강원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계획(안)을 상정함.

(안건 설명: 교무혁신부처장)

○ 교무혁신부처장

- 2026년 춘천·삼척 캠퍼스 주요 개선 내용을 설명함.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산 휴가 기간을 근무 기간에 포함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연구 부정 행위도 환수 대상에 넣었음. 위원회 구성 현황도 통합 이후 보직명으로 변경함. 교육영역에서 유학생 유치 활성화 ~~를 위해 영어강의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외국인 유학생 특성학과까지 포함하였으며,~~ 학생 지도 영역에서 외국인 특성화 학과 전담교수의 활동을 진로지도 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함. 또한 우수 논문에 대한 배점을 상향함. 전체 예산은 221.7억 원 규모임.

○ 장철성 위원

- 개정안을 보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점수 체계 변경 시 교수들이 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년도 1점당 금액’을 함께 공지해줄 것을 건의함.

○ 위원장

- 그동안의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의 배점 방식이 타 대학 대비 역차별 소지가 없는지 검토 필요성 제기. 이 포물리가 옳은지는 기획처와 함께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음.
- 위원분들의 추가 의견이 없으면, 다음 순서로 강릉·원주 캠퍼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관련 보고를 요청함.

、 44M 功 功 功 功 功

(안전 설명: 강릉교학처장)

○ 강릉교학처장

- 강릉·원주 캠퍼스 주요 개선 내용을 설명함. 변경 사유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반영하여 출산 휴가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명시하여 신분 변동자 처리를 개선함. 또한 통합에 따라 위원회 주요 보직자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교육영역에서는 주 강의일수에 따른 삭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강원대학교 관련 규정을 근거로 명확히 명기함. 연구 영역에서 대학 또는 캠퍼스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성과 보고서' 항목을 신설함. 아울러 논문게재장려금 트랙을 기존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하여 논문의 질적 강화를 유도하고 배점을 조정함. 전체 예산은 약 72.7억 원 규모로 전년 수준을 유지함.

○ 박경옥 위원

- SCOPUS급 논문 배점이 상향된 근거가 궁금하고, 춘천·삼척은 JCR 논문을 세분화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강릉·원주도 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캠퍼스 간 격차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됨.

○ 강릉교학처장

- 자연계열 교수님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임. 향후 JCR 등 통합된 기준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음.

○ 위원장

- 현재 캠퍼스별로 업적 평가와 교연비 운영 방식이 달라 향후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캠퍼스가 모여 합리적인 통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단 오늘은 안전을 통과시키고 향후 과제로 가져가겠음.

○ 위원장

-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함.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전원: 이의 없음)

1000
#251C

U
S
K

11/11/11

○ 위원장

- 해당 안전도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2026년 제1회 재정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의사봉 3회 타봉)

7월 2일 17시 45분